



# 러브미 명대사로 만든 노래

한 사람의 밤을 그대로 옮겨 놓은 행복, 외로움, 고독. 그리고 독백

- 2026. 01. 19. 캠강맘

## Intro

행복은 말이야 생각보다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다고들 해  
아주 멀리 있어서 손을 뻗어도 가끔은 닿지 않는다고  
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대  
근데 있잖아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... 불행 같지 않아  
진짜로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 
나는 오늘도 그 질문을 가방에 넣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

## Verse

외로움은 치부래  
그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것  
혹시라도 누군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방어기제가 먼저 작동해  
서둘러 변명을 하고 괜히 화를 내고 아무 일 없는 척 도망치지  
외로움은 감추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 
그건 죽음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야  
그래서 나는 아직도 괜찮은 척을 연습해

## Pre-Chorus

그래도 다음이 있을 줄 알았어  
커다란 꽃바구니를 아무 이유 없이 선뜻 건네줄 수 있는 다음  
공원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다음  
“엄마 잘 자” 그런 사소한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넬 수 있는 다음  
그런 평범한 다음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줄 알았어

### Chorus

지금 이 시간 나는  
고독한 걸까 아니면 외로운 걸까  
자발적인 혼자인 건지 어쩔 수 없이 혼자인 건지  
이 차이를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

### Verse

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어 그때의 나에게  
붙잡고 싶었어 멈추라고  
지금 이렇게 도망치면 계속 도망치게 될 거라고  
계속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 
그러다 보면 결국 계속 혼자 외로울 거라고  
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 
싸울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위로받을 수도 없고  
혼자 할 수 있는 건 외로운 것뿐이네

### Bridge

인생은 말이야  
어떤 빛나는 축복도 어떤 지독한 슬픔도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내버려두지 않더라  
지독한 슬픔보다 심장을 뛰게 만드는 내 분노가 더 중요하고  
지독한 슬픔보다 예기치 않은 작은 설렘이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이더라  
그래서 다 지나가는데도 지금 이 마음은 자꾸 진짜 같아

### Verse

새벽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 숨길 수 없는 시간  
낮에는 즐거운 척 외롭지 않은 척 그 중간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 
새벽엔 그게 안 돼  
나는 그 중간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시간  
그래서 새벽엔 문장을 적게 돼

### Chorus

고독은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즐거움이라던데  
외로움은 타의적으로 혼자가 된 괴로움이라던데  
지금 이 시간 나는 고독한가요 아니면 외로운가요

### Outro

지금 이 순간 깨달았어  
내가 저 사람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다는 걸  
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할 이유로  
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 
행복이 아주 멀리 있어도 오늘을 버텨낸 것만으로도  
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